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발행인 · 이순남

편집인 · 박혜숙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전화 · 02-2650-5703~4

팩스 · 02-2653-8891

제 15 호 <2008. 3>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0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 개최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가 2월 14일에서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총 74

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캠프 첫날은 세종리더십 김은경 원장의 '리더십,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의 여성리더십에 관한 강의로 문을 열었다. 이어 신입생들의 리더십 자가진단 순서와 '리더십 교육연극'이 진행되었으며, 권복규 교수(의학교육실 차장)의 지도 아래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지 조별로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우경숙 이화의대 동창회장(21회)도 자리를 함께해 선배 의료인으로서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었다.

행사 둘째 날에는 대한YWCA 연합회 박은실 강사의 '새로운 여성리더(기독교 여성리더십)' 강의와 함께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열려 의학전문대학원 학교생활안내, 학사안내 등



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다음날 오전까지 학생회 ·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학생회 소개와 동아리 홍보, 재학생-신입생 만남의 시간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재학생과 신입생의 화합된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었으며, 권복규 교수는 "신입생들의 의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와 리더십 개발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개최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9일 의학관A동 김옥길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6명과 많은 학부모들,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입학식 이후에는 기초의학교실 소개 및 교과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마련되었다. 2007학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행사를 통해 많은 신입생 가족들이 학교를 돌아보며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학교에 더욱 관심을 둘 수 있어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07학년도 의과대학 졸업식 열려



2007학년도 의과대학 졸업식이 2월 25일 본교 포스코관 153호에서 열렸다. 70여명의 졸업생, 교수,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 및 상장 수여식, 동창회 입학식이 차례로 진행

되었다. 의학과에서는 학사 85명, 석사 35명, 박사 10명이 배출되었으며, 학사 학위 수여자 중 수석 졸업상은 이상우 학생, 김애다상은 조가

은 학생, 대한사협회장상은 정수연 학생, 대한의학회회장상은 박지현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그리고 동창회장상은 한은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최우등상은 2명, 우등상은 12명의 학



생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졸업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한 행사로 의대 졸업생의 지속적인 모임을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 '멘토-멘티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멘토-멘티의 날 행사가 2월 1일 본교 입학관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화의 멘토링 ELF(Ewha Linkage Fellowship) 프로그램은 선배 의료인과 의

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의료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20명의 멘토 선배님과 20명의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순남 원장의 인사말 후 본교 WISE 거점센터 문미옥 강사의 '멘토링(Mentoring)' 강의로 진행되었다. 문강사는 멘토링의 개념, 멘토링 수칙, 멘토의 역할, 멘티의 역할, 멘토링 효과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후 행사에 참여한 멘토 선배님들의 소개 시간이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멘토-멘티 만남의 시간으로 멘토링 협약서 및 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 페이지에서 멘토-멘티 참가 소감문을 볼 수 있다)

멘토 김도연 교수-멘티 박보람 의전원생 소감문

- 멘토 김도연 교수 (동국대 내과)



이화대의 내과 동문 송년회 참석 때 ‘멘토-멘티’ 행사의 팸플릿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당일 날 도착하여 나의 멘티로 지정된 학생과 인사를 하고 행사 진행 동안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멘토 선배님들의 말씀도 듣고 마지막에는 멘토 멘티가 함

께 계획서를 같이 작성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놀란 것은 멘토 선배님들의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과 멀리서도 풍기는 인생 연륜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나도 “나의 멘토 선생님이요 저분이 좋겠다. 나도 멘티하고 싶어라”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반면 “나는 적절한 멘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었다. 나의 멘티 학생은 학업에 뛰어난 열정과 바람이 있어서, 나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젊을 때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다 해보라고 충고해주었다. 하지만 끝나고 “이것이 정말 적절한 멘토링인가?” 고민이 남기도 하였다. 누구나 다 나의 길에 대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여러 번 품을 것이다. 나는 길눈이 매우 어두워 남들도 다 인정하는 ‘길치’다. 그러나 요새 네비게이션 때문에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멘토란 ‘인생의 네비게이션’이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러나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멘티의 권리라면, “300미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전방 100미터 앞 터널 구간입니다” 등 방향과 속도, 휴식의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이 멘토의 역할일 것이다. 그래서 난 멘토도, 멘티도 하고 싶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나의 멘티 박보람 학생이 바라는 대로 학교 공부도 잘하고 미국 의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학장님이 나누어 주신 멘토 위촉장의 위촉기간은 2년이던데, 이를 더 연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만 마친다.

- 멘티 박보람 학생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기대감과 설렘을 안은 채 ‘멘토-멘티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처음엔 어색할 것 같아 걱정도 되었지만, 우리 학교선배님인 김도연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편안한 분위기에서 멘토링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멘티 선생님 소개 후에 열

린 멘토링 강의에서는 멘토와 멘티는 어떤 관계이며, 멘토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멘토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같은 분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멘토 선생님과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남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거인은 아마도 그에게 영향력을 미친 멘토를 의미할 것이다. 의전원에 입학한 후 구체적인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중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멘토 선생님의 조언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서로의 요청(ELF)이 돼 주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이화대의 선교 후원 기금, 대외협력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7~9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 현황>

기부자	기금명	금액
함정희 교수	피부과학교실 발전기금	30,000,000원
안정자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0,000,000원
하은희 교수	의대장학금 및 예방의학교실	3,000,000원
박혜숙 교수	조교발전기금	3,000,000원
고광덕 고운여성 병원장 (의전원1 학년 학부모)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50,000,000원

(약정문의 Tel: 02)2650-5707)

* 의과학연구소 소식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외 연구비 수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구소 경유일 기준>

성명	수혜처	금액(원)
이향운	한국과학재단	48,000,000
유경하	한국과학재단	110,000,000
최정운	한국과학재단	48,000,000
최경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20,000,000
이화영	한국학술진흥재단	46,800,000
하은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348,000,000
심봉석	질병관리본부	180,000,000
정성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6,200,000
오세관	농촌진흥청	50,000,000
문병인	한국유방암학회 2건	8,800,000
성연아	중외제약	29,018,000
	한국아스트라제네카	5,000,000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4,400,000
정순섭	한미메디케어	19,800,000
방은경	한스바이오메드	13,915,000
임원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7,500,000
김관창	신임교원연구과제	20,000,000
송동은	신임교원연구과제	20,000,000
최윤희	신임교원연구과제	20,000,000
총 20건		1,215,433,000

* 학생 및 교수 소식

1. 학생 소식

◆ 2007 동계 해외의료봉사, 베트남에서 펼쳐져



2007학년도 동계 이화해
외의료봉사단 활동이 베트
남 하노이에서 1월 26일 부
터 2월 2일까지 펼쳐졌다.
신상진 교수(정형외과)를 단
장으로 하여 한재진 교수(흉
부외과), 최혜영 교수(피부
과), 김한수 교수(이비인후과)와 의대생·의전원생·본교생 9명, 병원
치과 의사·전공의·약사·간호사 등이 봉사단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의과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주고 계시는 김병순 이대 동문이 특별히 참
가하였다.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 후 귀국
하였으며 3월 12일 해단식을 갖고 뜻 깊은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008년도 제 72회 의사국가시험이 치러진 결과 본교에서는 재학생,
재수생을 합쳐 총 95명이 응시하였으며 불합격생이 1명 있어, 전체 합
격률은 98.9%를 나타냈다. 이 중 재학생 85명은 전원이 합격해 100%
의 합격률을 보였다.

◆ 72회 의사국시 결과 재학생 100% 합격

2008년도 제 72회 의사국가시험이 치러진 결과 본교에서는 재학생,
재수생을 합쳐 총 95명이 응시하였으며 불합격생이 1명 있어, 전체 합
격률은 98.9%를 나타냈다. 이 중 재학생 85명은 전원이 합격해 100%
의 합격률을 보였다.

◆ 자유열람실 좌석 증석 등 학생시설 확충

의학관 B동 9층과 10층 자유열람실 좌석을 증석하는 공사를 실시하
여 학생 공간이 확충되었다. 9층과 10층에 각각 10석, 20석이 늘어나 9
층에 150석, 10층에 140석으로 자유열람실 좌석이 총 290석이 되었다.
또한 7층 개방 컴퓨터 실습실 이용 시간 제한에 따른 학생 불편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9층 자유열람실 옆 전실에 3석, 10층 자유열람실 옆 전
실에 1석의 개방 컴퓨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 편의
를 도모할 예정이다.

◆ 방학 중 다양한 동아리 활동 풍성

동계 방학 중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풍성히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진료봉사동아리 중 CMF가 1월에 경상북도 봉화군에, KMSC가 베트남
라오스 비엔티엔 근교 톨라쿤 병원에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공연 동아
리 중 EMO는 1월 12일에 본교 음대 김영의홀에서 제26회 정기연주회
를 가졌고, COEM은 2월 16일에 신촌 '작은 풀씨의 꿈'에서 정기공연을
열었으며 Acoustics 역시 같은 곳에서 1월 11일에 제22회 정기 공연을
열었다. 그리고 사렛은 2월 2일에서 3일까지 흥대 소재 '명월관'에서 제
35회 정기공연을, Etude는 2월 23일 의학관A동 김옥길 홀에서 정기공
연을 가졌고 IRIS는 3월 13일에서 15일까지 대학로 예충회관에서 서울
시내 8개 의과대학 사진반 연합 사진전행사에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동아리 AMSA는 1월 9일에서 13일까지 방곡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알찬 동아리 활동을 보여주었다.

2. 교수 동정

◆ 신입 교수 (2008년 3월 1일자)

소속	이름
생리학 교실	최윤희 교수
흉부외과 교실	김관창 교수

◆ 퇴직 교수 (2008년 2월 29일자)

소속	이름	구분
병리학 교실	김옥경 교수	정년퇴직
소아과학 교실	이근 교수	정년퇴직
산부인과 교실	김종일 교수	정년퇴직
영상의학 교실	서정수 교수	명예퇴직
피부과학 교실	함정희 교수	의원퇴직
외과 교실	이재길 교수	의원퇴직

◆ 최경규 교수, 양천메디컬센터 새병원 기획단장 취임



이화의료원은 2월 14일 서울특별시립 양천메디
컬 센터 새병원 기획단 단장에 최경규 교수(신경
과)를, 부단장에 고영도 교수(정형외과)를 임명했
다. 최경규 양천메디컬센터 기획 단장은 “시립병원
으로서 저렴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공의료 기능이 제1의 목표”라며 “병원 건립 준비
단계부터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서울시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화순 교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월 30일에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2007년도 정회원에 이화대의 정화
순 교수 등의 선출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설립
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의 최고 석학 300여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
는 단체로, 한림원 정회원은 학술 연구 경력 20
년 이상인 자이면서 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가진 사람
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학회의 추천, 평의회 심사, 총회 선출 등의 과정
을 거쳐 선정된다.

3. 의료원 동정

◆ 이화의료원, '서울특별시립양천메디컬센터' 수탁 운영



이화의료원이 서울특별시립
설립하는 노인성질환 전문치료
병원서울특별시립 양천메디컬
센터(가칭)의 수탁 운영자로 최
종 결정됐다. 양천메디컬센터는
올해 5월에 착공해 2010년 5월
에 지하3층, 지상 7층 건물에 350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며 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주 진료 과목으로 하고 그
외에도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 총 20개과를 운영해 노
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서의 면모를 갖추 계획이다. 서현숙 이화의료원장은 “경영상 병원 시
스템에 있어서는 최고의 효율성을 살리고, 진료에 있어서는 우수한 전
문교수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모범적인 시립 위탁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교류보고

“한국의 의료현장을 체험한 값진 경험이었어요”

—동경여의대 자유선택 임상실습 교류학생 인터뷰—



일본 동경여의대의과 대학 학생 2명이 2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본교에서 자유선택 임상실습(elective clerkship)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3월 본교와 동경여

의대가 맺은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일본 측 실습생을 받은 첫 사례로 본과 3학년 오키자키 다카코, 구리야마 도모코 학생이 방문했다. 실습은 일본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성형외과(2주) 산부인과(1주) 소화기내과(1주) 순으로 월~금요일 진행됐다. 이들의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았다.

Q : 임상 선택실습에 관한 소감은?

A : 구리야마 “고교시절 한국에 수학여행도 와보고 홈스테이도 해보았지만 병원 내부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다.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이대병원뿐 아니라 로칼 병원까지 소개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오키자키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다. 올 때는 언어 등의 문제로 조금 불안했는데 모두들 너무나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Q :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A : 구리야마 “동경여의대 본원에서는 성형외과를 돌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한국의 성형외과, 특히 미용성형은 일본에서도 유명하다. 개인적으로 산부인과에 관심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외국의 산부인과도 자세히 보고 싶었다. 또한 메이저과인 소화기내과도 경험하고 싶었다.”

Q :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 : 오키자키 “미용성형 수술에 직접 참가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가위로 거즈를 잘라드리는 등 간단한 어시스트를 하면서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선생님께 성형외과 선택 이유를 여쭙봤더니 외모의 극적인 변화로 환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셨다.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럴것다는 생각이 들었다.”

Q : 의사소통에 불편함은 없었나?

A : 구리야마 “매우 자세하고 친절한 영어매뉴얼을 준비해주셨다. 스케줄이나 인근 지도,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의 연락처까지 꼼꼼하게 적혀있어서 온 첫날부터 불편함이 거의 없었다. 이화의대 학생들과 실습을 같이 돌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우선 한국어로 전체 설명을 하시고 그중 필요한 부분은 영어로 말씀해주셨다. 로칼 병원에서는 주로 영어를 썼다.”

Q : 이화와 동경여의대와의 차이점은?

A : 오키자키 “이화에서는 모두 영어 원서로 공부한다는 것이 부러웠다. 영어 잘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의학용어가 일본어로 돼있고 번역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를 익히려면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원서로 공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으니 참 좋을 것 같다.”

Q : 이번 실습에서 아쉬웠던 점은?

A : 구리야마 “실습기간이 4주일이지만 한국의 설 연휴가 끼어서 거의 3주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성형외과가 2주일이었지만 연휴를 빼면 7일에 불과했다. 또 산과와 부인과를 합쳐서 1주일 실습이었는데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Q : 임상 선택실습 교류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것은?

A : 오키자키 “실습기간 중 선생님께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학교 학생끼리의 관계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 여름 동경여의대에 가기로 결정된 이화 학생과 줄곧 친하게 지내며 교분을 쌓았다. 학생들끼리 친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많아지면 실습 교류 프로그램도 더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생 이영이 학생 기자—

♣ 알려드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77@ewha.ac.kr)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 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